

사마귀가 수레를 막아선 꿈을 당랑거울(螻蛄拒輸)이라고 한다. 도저히 필법하지 않은 싸움을 일컫는다. 기독교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라 한다. 영국 속담에는 파리가 거북을 물어 뜯는 격이라고 한다. 천성산을 살리려는 지을 스님의 단식투쟁이 그랬다. 2003년 부산역 앞에서 38일간 단식을 할 때 세상은 무심했다. 뜨거운 피약별만이 내리쬐었다. 그 후 45일간 매일 3천 배기도, 또 다른 45일간, 58일간 단식 때도 마찬가지였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 홀로 외로웠다.



**불자 세상보기**

이우상  
소설가 · 대진대 문창과 겸임교수

# 100일 단식의 불이법문

‘똥었다. 싫었다. 이겼다’는 함성이 들린다. ‘단식에 밀리고, 법적공방에 휘둘리고, 천문학적 비용손실’이라는 탄식도 들린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다. 승자가 웃고 패자가 우는 싸움이 아니다. 지을 스님은 승자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를 규정하는 잣대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목숨을 걸어야 하나의 잣대가 세워지는 관습을 타파해야 한다. 3·8선 굶듯이 책상 위에서 졸음 그으면 산을 풀고 물을 막을 수 있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목숨을 걸지 않

도 환경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앞으로 3개월간 환경영향 공동조사 기간 동안 조사가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전부다. 지을 스님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공동조사의 공정성, 엄격성, 정확성, 미래지향성 뿐이다. 그 원칙이 지켜진다면 지을 스님의 단식이 세상에 던진 교훈은 크다. 목숨을 걸어야 하나의 원칙이 세워지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다. 멀쩡고 멀쩡해 지구촌의 여러 곳을 다녀보았

다. 나라마다 환경 지키기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다. 보이지 않던 것, 들리지 않던 것들이 정수리에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심각하게 다가왔다. 한반도는 너무 좁다. 합부로 부수와 동개기에는 여백이 없다. 편리를 목적으로 여기저기 들추쳐 불 공터가 없다. 있는 것을 오히려 지키는 데에 힘을 모으는 것이 백번 옳은 일이다. 재생될 수 없는 것이 생명이고 환경이다. 제중 30kg이 될까 말까한 비구니 스님이 세상을 향해 부르짖었던 절규가 우리 모두를 일깨우는 찬물이다. 단식을 풀며 지을 스님은 말했다. “모든 생명과 우리들이 돌이 아니라는 데서 천성산 이야기를 시작했으며 지금은 대립되는 듯 보이는 정적과 저희들이 동화처럼 쓰는 도롱뇽 이야기가 돌이 아니라는 데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미숙함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이제 마른 땅에 심어진 생명의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그 영지가 우리와 아이들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의 불이법문이 극단과 적대 아닌 세상, 여백하게 회화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는 첫 단추를 잘못 꿴 일이 없기를, 잘못 꿴 첫 단추로 인한 갈등과 폐해가 종식되는 계기가 되길 염원한다.

**특별기고**

## 천성산문제의 본질과 향후 대책

이병인 (밀양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로 정립 · 홍보하여 이 시대에 드러내고, 장려하는 일이다.

넷째는 천성산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일이다. 앞으로 3개월간 진행될 공동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 확보와 지속적인 여론화과정으로서도 중요하다. 월1회 이상 교계내의 주요 단체의 주도로 천성산의 중요 현안에 대한 정기적인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섯째는 지을 스님에 대한 지속적인 상징성을 홍보하고, 일반인들에 대한 이해를 장려하여야 한다. 이점은 특히 불교환경운동의 상징적인 존재로 특성화하여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물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중단차원에서도 지을 스님을 활용하여 불교적 상징성을 살리는 환경활동에 대한 지원을 적극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

천성산 문제는 이 시대 불교계의 역량과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이자, 지표가 되고 있다. 부디 사부대중의 노력에 의하여 불교계가 이 시대의 총실한 지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

지을 스님의 단식을 통해 천성산 문제는 현재의 회두가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단순한 지을 스님 개인에 대한 생명보존과 국책사업을 방해한다는 식의 의미로서 천성산 문제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천성산 문제의 본질은 지을 스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오늘날 한국불교계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한 단면을 드러냈다고 보는 것이 옳바를 것 같다.

그동안 우리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개발위주의 잘못된 관행을 묵인해주는 사회의 큰 흐름 속에서 살아왔다.

천성산 문제나 새만금 문제의 핵심은 국책사업으로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과 경제적 효과가 아니라, 원초적으로 잘못된 정치적 결정을 의한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낳은 결과물이라는 것이었다. 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 그로 인한 부작용과 원천적인 문제점은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또한 형식적인 재검토과정에서도 대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대안 검토가 원천적으로 배제됐다는 사실이다. 더욱 갑갑한 것은 이와 같은 개발당시의 문제점과 논리가 아직까지도 관성의 법칙으로 묵인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최근에는 환경친화적이라는 미명아래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기에도 개발논리만 있지 환경에 대한 배려는 없다. 어설플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요건으로 되어가고 있으며, 환경영향을 전담하는 환경부는 정부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있다. 이번 지을 스님의 단식에서도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환경부는 없었고, 개발부서인 건교부만 있었다. 침묵하는 환경부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개발논리만을 내

세우는 정부와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식의 어려운 싸움이었고, 그 과정에서 지을 스님이 가야 할 길은 항시 마지막 길이였다. 이제부터라도 불교계에서는 지을 스님이 이론 힘겨운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 새만금과 북한산에서 보여준 수경 스님의 삼보일배와 지을 스님의 단식은 불교계와 우리사회 전체가 이어가야 할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불교계는 환경문제에 관한 한 이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고 불교적 장점을 바탕으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천성산 문제의 해법은 이제부터이다.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합리적 과정에 의한 적절한 대

또한 천성산에 대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책임을 갖고 일시적이 아닌 보다 체계적·조직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그동안 중단이나 불교계의 대응은 분명히 현안중심의 일회성 대응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정치적인 부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다보니 결국 지을 스님 혼자만의 일로 남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교계내의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모두의 관심사, 모두의 일이어야 한다.

천성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후의 조치는 지난 재검토위원회와 같이 형식적인 검토가 아니어야 한다. 실질적인 협의와 검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총력을 모아 다음과 같은 점을 이루어야 한다.

## 잘못된 관행부터 고쳐야 환경도 산다

책을 도색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불교계 내부에서도 잘못된 관행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과 정부당국에 대한 무비판적인 풍조가 있었다는 자성이 있었다. 불교의 친환경적 가르침과 생활양식을 잘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불교계가 국책사업 탈미를 잡았다는 오명을 뒤집어 쓸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천성산 문제의 앞날은 환경문제에 대한 불교계의 역할과 활동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다. 자성과 참회, 교계의 전문화 및 체계화, 내부교육과 홍보, 불교환경가르침의 생활화 등이 지금의 이 시점에서 다시 정립 · 실천되어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추진하는 불교환경의제2사업은 현실 속에서 생활화하고, 다시 실제적으로 강화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는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그룹 확보 및 검토이다. 그동안의 재검토위원회는 정말 형식적인 위원회로서 제대로 된 검토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다. 단기간에 걸친 조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신있는 위원들의 집중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천성산에 대한 사후환경관리방안 및 그를 위한 기초 자료 확보이다. 이전의 공동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자료는 이후 진행될 천성산 개발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필요성이 있다. 공동조사에 의하여 문제점이 확인되어 천성산을 관통하지 않은 대안노선이 확정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셋째는 천성산 백석 등 천성산 관련 자료들을 자료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잘못된 정부와 사회의 개발논리를 확인하고, 천성산의 생명존중과 사당에 대한 환경보존에 관한 논리를 체계적으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사람을 통해 전해 내려온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람이 현대사회의 요구와 흐름에 부응하는 변화를 이룩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실상에 있어서는 서로 반대되거나 충돌하는 일이 아니다. 사람의 본질과 의미를 투철하게 이해할 때 그 본질적인 면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실에 맞는 변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 들리는 해인사의 변신 선언은 이렇게 사람의 본질을 지켜가면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사람의 한 본분기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무척 고무적이다. 전문 연구진을 강화하여 교학 연구의 전통을 이어가며,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교육을 충실히 받은 국제 전법사를 양성하고, 목판인쇄박물관을 개관하여 사람을 전문적인 문화보존과 선양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하며, 교구 말사의 분당금을 다시 말사로 지원하여 지역별로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등의 사항 하나 하나가 이 시대

## '큰 절'의 변화에 박수를...

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 올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 이러한 결정으로 하여 앞으로 해인사는 우리 한국불교계를 앞서 이끌어가는 사람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의 변신이 해인사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고, 또 해인사도 이번의 변신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선은 해인사의 모범을 검토하여 각 사찰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변신을 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다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고, 그것을 현실화하는 제 2, 제 3의 변신 모델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전통 사찰 구역을 중심으로 주변에 지역사회와 호응하고 일반인들의 수행도량이 될 수 있는 수행과 문화의 공간을 새롭게 배치하는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행과 포교의 중심으로서 그 기반기능을 충실히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정신적 문화적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사찰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모색이 절실한 때이다. 해인사의 변신선언이 이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불교법사대학에서 법사의 삶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출강 통신 법사학인 수강생 모집**

13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불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5학년도 제14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교육방법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로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학습도량

① 원서 교부 및 접수: 2005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②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본 대학 교무처(우편, 팩스 접수 가능)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중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인터넷 http://pubsa.buddhism.org 팩스 737-5305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베스트 셀러** 단 하루 공부로 평생을 두고 보는

# 속을 보이는 사람들

해탈이란 마음의 해탈이다. 어느 것에도 얽매지 않는 마음의 자유가 해탈이다. 이것과 저것을 가르고 내 것과 남의 것을 가르는 분별심을 버리고 마음 깊숙이 들어 있는 내면의 소리를 고집어내는 그것이 해탈이다. "저를 해탈하게 하소서."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는가?"  
"아무도 저를 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가?"  
승한 대사의 해탈법문을 듣는 순간 온갖 번뇌와 미혹, 망상과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유의 진리를 깨닫고 해탈의 경지를 얻은 구도자는 훗날 제4대조가 된 도선 대사이다.

본문 해탈이란 무엇인가? 중

• 해광스님 지음  
열린출판사 / 각 9,000원

해광(海光)스님 불교비전의술서 '법기비결' / 실용역서 '운명비결' / 첫 번째 최초의 소설식 불교교사서 '영초보 절에 가다' 집필 중.

「운명비결」 「속을 보이는 사람들」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등 전국 대형서점과 인터넷 교보,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리브로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행자 전수자 모집

금강선원 해광스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31-14 TEL 032)665-8472

누구나 오전에 이 책을 열면, 저녁 뉴스시간 이전에는 자신의 운명을 환하게 아는 도사가 된다.

누구라도 이 책을 보면 평생동안 자신의 매일매일과 평생의 운수와 운명을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다.

• 해광스님 지음  
신국판 / 양장본 / 416페이지  
정가 12,900원

- 자신의 평생을 좌우하는 운명수와 속명
- 자궁지의 사주팔자
- 집, 사업 전화와 휴대전화의 사주팔자
- 부동산집, 땅, 가게, 사업장의 사주팔자
- 자동차, 전화, 부동산과 인간의 궁합 보는 법
- 대인관계(사업, 교제, 결혼, 취직)의 궁합
- 인간 일대사를 평생토록 즉시 즉시 판단하는 법
- 시험, 건강, 혼인, 매매, 사업, 금전, 소송, 여행, 소원 운세